

공동체 소식

연중 제 4주일



하느님,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 예언자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행복과 거부하는 불행을 드러내시니, 교회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정한조, 정지현(막달레나) 가정

설날 합동위령미사

명절을 맞아, 새해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미리 위령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위령 미사는 2/10(일) 오전 11시입니다.

사순시기 운동

- 한 가족 성경 쓰기 : 사도행전
- 주일미사 30분 전, 공동 십자가의 길
- Rice Bowl 봉헌

재의 수요일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날, 교회는 전통적으로 머리에 재를 얹으며 회개의 삶을 다짐합니다.

☞ 재의 예식 및 미사 : 2/13(수) 오후 8시

Archbishop's Call To Share

캔사스 대교구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기금 마련에 저희 한인 공동체도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본래 개인별 1년 약정 봉헌인데, 저희는 두 차례(1/27과 2/3)에 걸친 ‘목적 현금’으로 대주교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2/9(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여 성당

기타

- 주일미사 10분 전,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1단’을 봉헌하겠습니다.
- 주일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례부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2/13)’에 사용할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 오늘, 한인체육회에서 홍보활동으로 저희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 2/17(일)부터 애찬봉사그룹이 새롭게 편성 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399	512	170/174	40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안광민(야 고 보)	김태중(예레미야)
	안광희(크 리 스)	문호진(안토니오)
차주	정준구(파비아노)	정수한(베 드 로)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예찬(미 카 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김명은(안 젤 라)	문문주(엘리사벳)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김태중(예레미야)
	김수연(올리안나)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서정애(안젤라) 김화년(요안나), 정선식(베로니카)
차주	다 함께(설날)

헌금 봉사자

금주	문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현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현금	교무금
1/20	105명	557불	440불
1/27	98명	384불(267불)	1,260불

☞ ()는 목적현금입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향 나자렛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어 그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 (렘브란트 1629, 유채화)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시메온의 예언처럼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의 빛, 계시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루카 2,25-39 참조)임을 나타내고 있다. 렘브란트는 감각적인 빛과 어둠을 넘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빛까지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구원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의 빛(후광)을 통해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예레 1,4-5.17-19 <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

화 답 송 :

- 주님 제가 바라는 곳 임이시오니 결단코 부끄럼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정의로 저를 건져 살려 내시고 제 하소연 익히 들으사 구원해 주소서. ◎
- 몸 숨길 바위 굳센 보루 되시와 저를 살리소서. 저의 바위 저의 보루가 임이 아니오니까 악한 자의 손에서 주님 저를 빼내소서. ◎
- 주님 제가 믿는 데 당신이시고 어려서부터 저의 희망 주님이외다. 어미의 품안에서부터 임은 저의 힘 모태에서부터 임은 제 의지시었나이다. ◎
- 진종일 제 입은 당신 정의를 이야기하리이다 당신의 그 도우심을 하느님 젊어서부터 저를 가르치셨으니 묘하신 그 일들을 이때껏 일컫나이다. ◎

제 2 독서 : 1코린 12,31—13,13<또는 13,4-13> <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

복 음 : 루카 4,21-30 < 예수님께서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파견되신 것이 아니다 >

쉐 마

“약자의 길, 신앙의 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몇구절을 읽으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고향 나자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탄복하였지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율사나 사제와 같이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하느님과 연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살리는 일을 당신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의 강자인 유대교 실세(實勢)들의 손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죽어 가셨습니다.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느님을 부르는 일뿐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느님은 과연 약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강자와 함께 계시지 않고, 약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같은 실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과 교섭하여 강한 자가 되어, 남을 억압하며 자기 한 사람 잘 살기 위한 수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외면 하면서, 더 부요하게, 더 강하게, 더 화려하게 살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마르 8,33)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약자의 길입니다. 사랑은 강자로 군림하지 않고 약자가 되어 은혜로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녀 앞에 강자로 군림하지 않고, 약자로 행동하듯이 말입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



예수님은 약자로, 또 실패자로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거론한 ‘가난한 이’, ‘잡혀간 이’, ‘눈먼 이’, ‘억압받는 이’는 모두 약자이며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자들 중 한 사람이 되어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그런 약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었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 곧 불쌍히 여기고

마중물

칸트의 결혼

철학자 칸트에게는 젊은 날 그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칸트도 물론 이 여인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칸트가 여인에게 청혼을 하지 않자 기다리기 지친 여인은 먼저 칸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혼에 대해 칸트는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칸트는 자신의 일기장에 결혼을 하면 좋은 이유를 354가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이유를 350가지 적고는 네 가지 이유 차이로 고심을 하던 끝에 결국 결혼을 마음먹었는데, 이 결정까지 자그마치 7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칸트는 결정을 하고 그 여인의 부친을 찾아가 결혼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정신 있냐?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벌써 둘이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2장 사도신경



17.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신앙인, 신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마태 28,19 참조)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세 가지의 질문에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곧 신자들은 창조주이신 성부를 믿으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에 근거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2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없이 위대”(욥 36,26)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제일 먼저 섬겨야” 합니다.

18. 삼위일체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신비는 모든 신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곧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입니다. 이는 하느님 자신의 내적 신비이므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입니다. 이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구원의 역사[救世史]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려는 길과 방법의 역사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234항).